

미국의 유기농식품인증 상호 동등성 동향

□ 개요

- 미국은 전 세계 유기농 시장의 45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며 2016년 유기농 식품매출 43조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4조 이상 증가된 수치이다.
- 유기농제품의 인기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입 및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내 유기농식품 수출증대를 위해 미국은 최근 여러 국가들과의 유기농식품인증 상호 동등성을 추진하고 있다.
- 미 농무부 (USDA,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) 기준으로, 미국 제품 중에 ‘100% 유기농’ - ‘100 percent organic’ 레이블이 붙은 것은 유기농 재료만을 사용하여 만든 식품이다. ‘유기농’ - ‘organic’ 이라고 표시된 제품은 재료 중 95% 가 유기농이라는 의미이며, ‘유기농 재료 사용’ - ‘Made with Organic _____’ 레이블은 유기농으로 인증 받은 재료가 최소 70% 이상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.

□ 수출입통계

※ 미국의 유기농 수출입 통계는 대부분 신선을 상대로 된 수출입통계임

○ 유기농수입 (선별된 유기농식품)

(단위 : 천불)

	국가	2014	2015	2015.10	2016.10	증감율
	전체	1,274,790	1,585,129	1,362,680	1,402,846	3
1	멕시코	132,205	141,440	124,787	139,622	12
2	이탈리아	128,229	136,612	119,022	100,596	-15
3	페루	99,678	115,327	87,036	77,801	-11
4	아르헨티나	52,004	103,628	89,951	80,290	-11
5	인도	88,647	95,295	82,774	55,801	-33
6	스페인	71,017	76,143	61,493	76,247	24
7	우크라이나	16,608	72,983	69,989	20,378	-71
8	에콰도르	49,952	69,555	57,292	84,081	47
9	콜롬비아	49,032	66,077	58,732	49,978	-15
10	캐나다	54,174	62,645	51,018	65,905	29
77	한국	61	65	62	92	49

※ 출처 : USDA FAS

- 선별된 유기농식품 수입 중 한국으로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제품은 신선배 (2015년도) 및 유기농 녹차가 있다.

○ 유기농수출 (선별된 유기농식품)

(단위 : 천불)

	국가	2014	2015	2015.10	2016.10	증감율
	전체	553,128	545,018	463,703	450,663	-3
1	캐나다	265,037	258,708	222,843	211,958	-5
2	멕시코	165,915	154,351	126,666	111,730	-12
3	일본	26,501	27,583	23,681	28,831	22
4	대만	16,519	16,144	14,741	24,176	64
5	UAE	7,608	14,371	13,331	5,522	-59
6	홍콩	7,792	10,868	10,220	9,247	-10
7	사우디아라비아	2,482	8,407	7,366	3,830	-48
8	중국	2,893	7,527	6,557	5,903	-10
9	호주	12,032	6,380	6,143	1,252	-80
10	한국	4,694	5,823	4,228	13,330	215

※ 출처 : USDA FAS

-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중 올해 10월까지 가장 많은 품목은 유기농 신선포도이며 그 뒤로는 유기농 신선레몬, 유기농 신선수박 그리고 케첩을 제외한 유기농 토마토소스 등이 있다.

□ 유기농식품인증 상호동등성 동향

○ 유기농식품인증 상호동등성(Organic equivalency)이란?

-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쌍방 합의로 된 상호인정 협정으로 두 국가의 유기농 식품 인증 시스템이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일컫는다. 상호동등성 인정으로 인해 각 국가는 유기농식품관련 사업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.

○ 미국의 상호동등성관련 현황

- 미국은 2009년에 캐나다와의 동등성협약을 시작으로 2012년에 EU와 2014년에 일본과 한국, 그리고 2015년에 스위스와 동등성협약을 맺었다.
- 2009년에 맺은 대만과의 동등성협약은 쌍방이 아닌 일방 상호인정으로 미국 제품만 대만에서 대만의 유기농인증과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.

-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무역의 증진 및 관리,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10월부터 Joint Organic Compliance Committee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하였다.

※ 멕시코는 미국의 가장 큰 식품교역국가 중 한군데이며 협의가 완료될 경우 미국 유기농식품이 3번째로 많이 수출되는 멕시코에 더 원활하게 수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○ 한국과의 동등성 협약관련

-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2014년 7월 1일부로 유기가공식품 인증 상호 동등성이 인정되고 있다. 즉, 한국 또는 미국에서 자국의 기준에 따라서 유기농 인증 (Organic Seal) 을 획득한 식품들은 상대국에서도 동등하게 유기농 식품으로 인정이 된다.
-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만 해당하며, 한국의 식품공전 상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식품에 한한다.
- 예외적으로, 항생제가 사용된 사과, 배가 원료로 사용된 미국 제품은 한국에서,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물이 원료로 사용된 한국 제품은 미국에서 각각 유기가공식품 인정이 불가하다.

□ 시사점

- 세계 각국에서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여러 국가와의 유기농인증 동등성 협약을 맺어 미국산 유기농제품의 수출 증가를 도모함
- 밀레니얼 세대가 유기농식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며 유기농식품을 소비하며 자란 이 세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기농식품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유기농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

출처 : USDA 및 OTA